



방학기간 어린이 시력 관리

# 치료시기 놓치면 완치율 '뚝' 부모 관심 중요

어린이 시력은 성인과 다르게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질환이 있어 시력이 발달되지 못하면 영구적인 시력장애로 남을 수 있다.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정상 시력을 회복할 수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미 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별 겨울방학 동안 검진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성주 안과원장이 양쪽 눈 중 한쪽의 눈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어린이의 눈을 진찰하고 있다.

◇시력이상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 무조건 안경에서 시력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면 안된다. 아이들에게는 일시적으로 근시 현상이 나타나는 '가성근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가성근시는 점안약을 처방받아 치료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만 안경을 쓰면 눈이 근시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 때로 안경을 썼다 벗었다 반복하면 눈이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경은 계속 쓰는 것이 좋다. 그래야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안경을 써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약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력의 원인  
안경이 교정되는 조절내사시, 안경으로 조절이 안돼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비조절내사시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사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또 안경 착용 결과에 따라 조절내사시인지 비조절 내사시 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시력의 원인과 종류  
한쪽 눈을 보고자 하는 곳을 보고 있는데 다른 눈은 의도와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시의 종류는 크게 안쪽으로 물러 있는 내사시, 밖으로 돌아가 있는 외사시, 위 또는 아래로 틀어져 있는 수직사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시는 아직까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개 원시나 근시 등의 굴절이상, 유전적인 요인, 뇌질환, 눈이나 머리의 외상, 시력장애 등을 들 수 있다.

▲내사시=눈이 안으로 물러 있는 내사시의 경우 선천성 내사시와 후천성 내사시로 나눌 수 있다. 대개 생후 6개월 이전에 눈이 안으로 물러가 되면 이를 선천 내사시 혹은 유아 내사시로 부르게 된다. 선천 내사시와 달리 후천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내사시는 평균 2~3세

때 많이 발생하게 되며 원시 안경으로 사시가 교정되는 조절내사시, 안경으로 조절이 안돼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비조절내사시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사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또 안경 착용 결과에 따라 조절내사시인지 비조절 내사시 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대개는 동반되는 원시 정도가 양안에 차이를 보여, 이에 따라 약시가 동반되므로 사시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약시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수술결과나 사시의 예후는 사시가 발생된 때로부터 치료 시작 시점까지의 기간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러한 내사시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다.

▲외사시=눈이 밖으로 틀어져 있는 외사시의 경우는 피곤하거나 망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 간혹 한쪽 눈이 밖으로 틀어지는 간헐성 외사시와 항상 틀어져 있는 항구성 외사시로 구분할 수 있다. 특징은 햇

빛이나 밝은 곳에 가면 한쪽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헐성 외사시는 우리나라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시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시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치료방법은 수술이고 수술 후 약 20%에서 재발을 하게 돼, 최근에는 이 병에 대한 수술시기를 최소 4세 이후로 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가능한 더 늦게 수술을 시행하려고 한다.

▲수직사시=눈이 위 또는 아래로 틀어져 있는 수직사시의 경우는 선천성, 외상, 근무력증, 갑상선 기능 이상, 뇌질환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복시와 머리 기울임 등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어린아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천성 상사근 마비의 경우는 어린아이의 아직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마비사시로 인한 머리가 기울어짐으로 얼굴 모양까지도 틀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에 진찰을 받고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좋다.

사시의 종류에 따라 치료 결과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사시는 한번 수술로 70~80%에서 완치되

고, 두 번 수술로 95% 이상 완치된다. 즉 대부분은 한 번의 수술로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시를 방치해서 오래된 경우에는 약시, 양안시 기능 혹은 입체시 기능의 상실로 수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한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눈 모양이 이상하면 빨리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시의 원인과 치료  
약시는 눈 자체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약시의 정의는 동반되는 눈의 질병이 없으면서 최고 교정시력이 0.7(혹은 0.8) 이하이거나 양안의 시력이 시력표상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나이가 15세 정도가 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교정도수의 안경 혹은 콘택트 렌즈를 하루종일 착용해야 하며, 약한 눈(lazy eye)을 더욱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차폐법(좋은 눈을 일정한 시간동안 가려주는 방법)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성인이 된 후에 이런 치료법은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어렸을 때의 조기발견 및 진단, 조기치료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수술로는 약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

(김성주 안과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우리 몸의 중심 '척추' 지키는 바른 자세

척추전문 새우리 병원, 척추건강 가이드 발간

새우리 병원 의료진이 허리 디스크 환자를 위한 책을 발간했다. 스스로 지키는 척추건강 가이드 '당신의 척추를 새우리'라는 이름의 이 책은 10여 년간 척추 분야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새우리 병원의 20인의 의료진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새우리 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허리가 "편"하면 인생이 "fun"하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병원측은 앞으로도 허리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꾸준히 펴낼 계획이다.

이 책은 한국인에게 보편화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총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해 올바른 눕기·앉기·서기·걷기법 등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허리와 목 건강에 적합한 운동법을 제안하고, 척추 수술이 필요한(혹은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수술법과 그 이후의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마지막 장에는 그 동안의 학술활동을 간추려 정리했고, 환자들의 치료 후기도 실었다.

새우리 병원 이민철 대표원장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 운동은 척추 질환의 예방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 후 재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 책은 척추 디스크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바른 자세와 습관'을 의학 관점

에서 꼼꼼히 짚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우리 병원은 2006년 국민건강공단에서 발표한 척추진료 실적에서 전국4위, 영호남 1위의 성과를 올렸고 최근엔 10여 년간 척추 한 분야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척추전문병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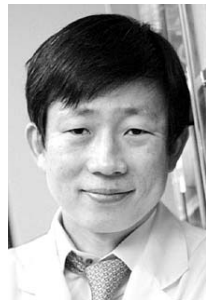
# 조선대병원 문영래 교수 무궁화회 대상

문영래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무궁화 전국 대축제'에서 무궁화대상(의료부분)을 수상했다.

무궁화대상은 (사)대한무궁화중앙회가 주관해 정치·경제·행정·언론·의학·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인사들에게 수여된다.

전국 시·도 단체에서 추천된 후보들과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추천된 인물들 중에서 불굴의 도전정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각 분야별로 경쟁을 통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문 교수는 어깨 관절 및 팔꿈치 관



절 분야의 전문가로 유럽 스포츠 학회 GOTS 자문위원, 대한스�포츠 의학회 이사, 지식경제부 산하 삼차원 영상 표

준화 사업단 의료분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동아병원, 환자 중심 진료환경 구축

최신형 MRI 의료장비 도입 본격 진료

동아병원은 28일 증축 완공과 함께 독일 지멘스가 개발한 최신형 MRI 의료장비 MAGNETOM Avanto 1.5 T(사진)와 64채널 MDCT를 도입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멘스가 개발한 MAGNETOM Avanto 1.5T는 MRI 최신형으로 짧은 시간에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18개 검출 채널과 SQ엔진이 채택돼 신속한 검사와 깨끗한 영상 획득이 가능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또 실제 촬영시간이 짧아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는 소아나 의식불명 환자 검사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며, 마그넷 길이가 1.5T MRI 중 가장 짧고 역방향 검사가 가능해 폐쇄성도증 환자도 검사가 가능하다.



동아병원 심상훈 대표원장은 "최신형 의료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로 더욱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대병원 공공기관 청렴도

35곳 중 가장 많이 향상돼

전대병원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크게 향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대병원(원장·송은규)이 지난해 보다 1.05점 오른 8.63점을 받아 조사대상기관(임원선임기관 등) 35곳 중 청렴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병원원장은 특히 조사대상 9개 국립대병원 중 경상대병원·제주대병원 등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인 평균 8.43점을 상회하는 8.63점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외부조사시행 기관에 의뢰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70개 기관을 상대로 전화와 온라인 조사로 실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 무등 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음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지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급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면적 330평/층 (분할임대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무등빌딩 임대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062) 222-0527**

#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층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